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7화 유혹에 빠진 아힘사



세 차례에 걸친 붓다의 거절에도 마하파자파티 국모와 아소다라가 아난다를 앞세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할 수 없이 여덟 가지의 조항과 348계를 존중하는 조건으로 출가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여덟 가지 조항(比丘尼八敬戒 八重法)은 다음과 같다.

1. 비구니(比丘尼)는 경력에 관계없이 비구(比丘)에 대하여 먼저 협장, 존경해야 한다.
2.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장소에서 안거(安居)를 해서는 안 된다.
3. 비구니는 한달에 두 번씩 비구승단으로부터 계율의 반성과 설교를 들어야 한다.
4. 비구니는 안거가 끝난 뒤 남녀 양쪽 승단에 수행이 순결했

- 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비구니가 죄를 범했을 때엔 남녀 양쪽 승단으로부터 반달동 안 별거(別居)를 당한다.
 6. 비구니의 견습은 2년의 수행 후 남녀 양쪽 승단으로부터 비구니 의식을 받는다.
 7.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8. 그러나 비구는 비구니를 꾸짖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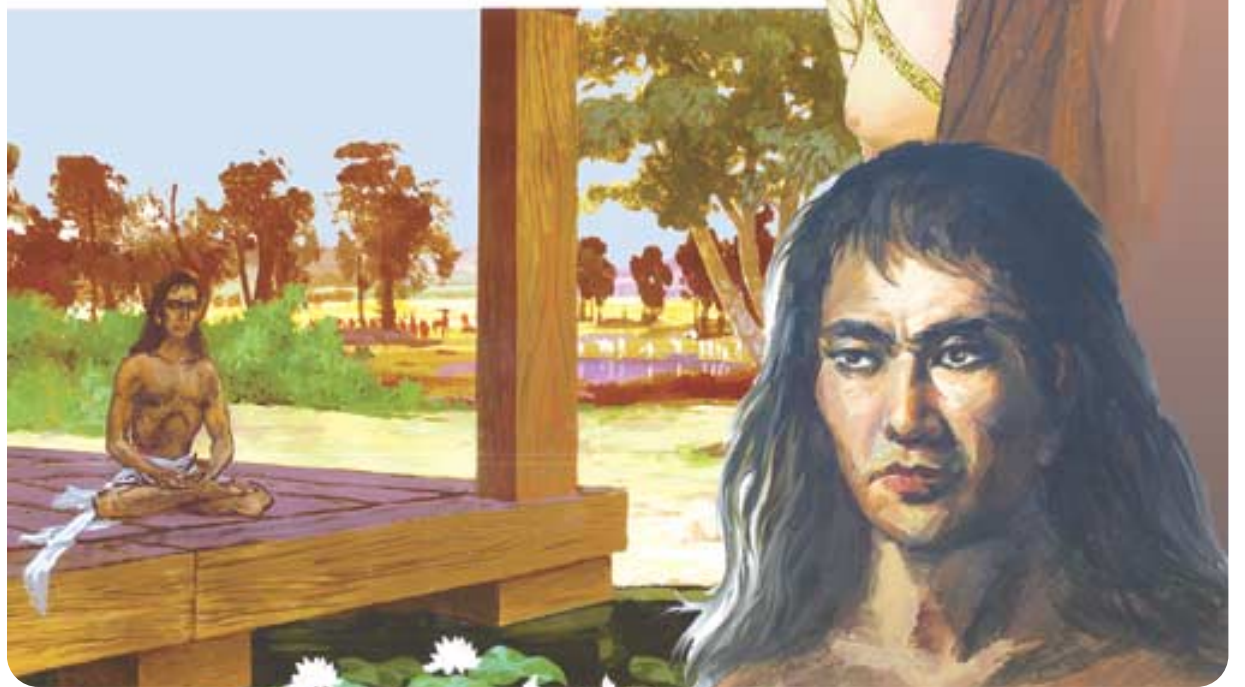
이상의 여덟 가지 조항을 받아들인 마하파자파티는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으며 비구니 승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적 인식상 여성들의 승단 진출은 가히 큰 충격이었다.



한 문역으로 사위성(舍衛城)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라바스티(Sravasti)와 부처님의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중간에 '마니 발타라' 라고 하는 브라만 (Brahman)이 오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행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앙굴리마라 (Anguli-mala)' 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아힘사'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다. '앙굴리(Anguli)'는 손가락(指)을 뜻하고 '마라(mala)'는 목걸이를 뜻하여 결국 '손가락 목걸이' 라는 의미가 된다. 마니 발타라 브라만의 오백 명 제자들 중에 유난히도 잘 생각하고 뛰어난 재주를 지녔던 아힘사 청년은 일찍이 12살의 나이에 출가, 수행하며 이제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까지 오르고 있어서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아힘사, 요즈음 너의 수도정진을 질투하는 자들이 근거도 없이 네가 많은 여자들과 음탕한 짓을 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을 들었다. 물론 모락이겠지만 그럴 수록 너는 각별히 몸조심, 행동조심을 하도록 하라. 오늘은 프라세나짓(Prasenjit) 국왕의 초대를 받아 궁궐에 좀 다녀올 것이니 너는 마음을 흐트러 없이 수도에 힘쓰도록 하라."



"스승님께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스승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수도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외출하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아힘사가 뜬소문을 무시하고 다시 선정(禪定)에 들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스승의 젊은 아내가 맛있는 음식물들을 준비하여 들고 나타났다.

“아 니, 사모님이 여기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이곳은 수도자들을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 여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금한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염려 마세요. 스승님은 벌써 멀리 떠나셨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성내로 탁발을 나가고 이곳에는 나와 그대 단 둘 뿐입니다. 참, 요즈음 그대에 관하여 많은 여인들의 소문이 떠돌던데요. 후훗, 젊고 잘 생기셨으니 여인들의 관심을 받을만 하지요. 그처럼 소문이 자자하신 바람둥이시라면 오늘은 나도 좀 안아주세요. 지금 이곳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들의 행위를 거리킬 이유가 없어요. 안심하고 그 젊음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호호."

아직 젊은 몸으로 늙은 스승에게 시집을 온 스승의 아내는 어디선가 얻어들은 소문을 믿고 아힘사가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젊은 여인들의 육체를 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전부터 그녀의 남편이 출타하기만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녀는 젊은이의 활기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그녀를 가렸던 모든 것을 훌훌 벗어던지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남자를 유혹하려 하였다.

너 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청년의 완강한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파렴치한 여인은 이미 정욕의 화신이 되어, 그녀의 뜨거운 가슴을 더 이상 제어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더 불쌍한 것은 여인의 들뜬 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런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청년의 당황함이었다. 다만 이 여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행동만 있었을 뿐이었다.

"사모님, 이러한 행위는 죄악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스승이 아버지라면 스승의 부인은 어머니가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인들과 놀았다는 것은 완전한 모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생애를 통하여 여인의 몸에 손끝하나 만져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사모님의 몸에 닿아있는 제 손의 감정은 지금까지의 수행을 파

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서 마음을 진정하고 옷을 입으십시오. 저에게 더 이상 수모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대는 이미 내 몸을 보았고 또 내 몸을 만져 본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완전히 남남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게 되어 버렸지요. 이왕에 이렇게 된 일을 무엇 때문에 끝까지 버티세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 이대로 저를 안아주세요."

한동안 스승의 아내를 사모님으로 공경하며 제자의 예의를 잃지 않고 지키려 하였으나, 스스로의 정욕을 식히지 못하는 이 여인은 이미 모든 이성을 잃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청년은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드는 여인을 멀리 던지고 말았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여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여 설득할 것인지 막막한 상태에서 그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